

샌드라 오 골든글로브 진행에 여우주연상까지

글 성혜미 기자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47)가 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사회를 본 것은 물론, TV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역사를 썼다.

코미디언 앤디 샘버그와 함께 사회를 맡은 샌드라 오는 시상식을 시작하며 "솔직히 이 무대에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여러분과 만나고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아마도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라며 "나를 믿어라. 이것은 진짜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상식 참석자들을 가리키며 "여러분들이 변화의 얼굴이고,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감동을 줬다.

샌드라 오의 이 발언은 올해 골든글로브의 수상 후보로 유난히 많은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배우와 감독이 지명되며 할리우드의 인종적 다양성이 확장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할리우드 영화 중 제작·출연진의 90%가 아프리카계 흑인인 '블랙 팬서'와 배우 전원이 아시아계인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인기를 끌어, 올해 시상식에는 예전보다 다양한 인종이 수상 후보로 올랐다.



AP통신은 "(미투 운동 등으로 온통 정치뿐이었던 지난해의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달리) 올해는 훨씬 덜 행동주의적이고 덜 정치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탄) 글렌 클로스와 공동사회자 샌드라 오, 리자나 킹의 연설은 좀 더 사적인 방식으로 평등과 다양성의 이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논평했다. 샌드라 오는 이날 시상식에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킬링이브'로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까지 거머쥐었다. 아시아계가 TV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1981년 '쇼군'의 배우 요코 시마다 이후 38년 만이다.

그는 2005년 골든글로브에서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로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골든글로브에서 아시아계 여배우가 두 차례나 트로피를 받은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샌드라 오는 수상 소감을 통해 "정말 영광이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곳에 엄마, 아빠와 계신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샌드라 오는 이어 13일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에서 주관하는 크리티크스 초이스 어워즈(Critics' Choice Awards)에서도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BBC 아메리카의 '킬링 이브'에서 펼친 절정의 연기로 줄리아 로버츠, 메기 질렌할, 엘리자베스 모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샌드라 오는 미 ABC 방송국의 인기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크리스티나 양 역을 맡아 열연하며 유명해졌다. 그는 한국계 이민자인 부모를 둔 이민 2세대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태어났다.

미국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이후 다카) 수혜자로서는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하버드대 출신 한인 박진규 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다카 수혜자로서 혼란스러운 심경과 그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글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카 수혜자는 '드림러'로 불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청했으나 협상은 공전하고 있고, 이후 다카 폐지 정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박씨도 2012년 다카 수혜자가 됐다. 미 최고 명문 하버드대에 입학해 지난해 12월 졸업했으며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다카 수혜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됐다.

로즈 장학생은 1902년 영국 사업가 세실 로즈의 유언에 따라 시작된 장학프로그램으로, 국제 학문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3년간 영국 옥스퍼드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박씨는 1월 11일자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에 대해 "그것은 내가 10월에 옥스퍼드로 떠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



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영속적인 현실"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장학제도 가운데 하나의 수혜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미국에서 내 자리가 있는지 나는 결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나는 매일 내가 미국 사회에 속해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이 나라(미국)에 '우리는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나는 스마트하고, 다른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직접 혜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같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미국 체류를 위해 나의 '지능'이나 '능력'을 언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사람이 기본적인 공정함과 품위로 대우받기 위해 '로즈 장학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간은 동등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천재'이거나 경제적으로 생산적일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는 동료이고 친구이자 급우이고, 동료 미국인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일하고 배우고 웃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이 자라온 뉴욕 퀸즈 플라싱의 북적대는 베흐시장과 한국식당의 떡볶이 냄새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뿌리고, 현재의 내가 되기까지 나를 성장하게 한 광경이자 소리"라고 말했다.

박씨는 외환위기 당시이자 7세 때인 1997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왔으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플라싱에 정착했다.

‘美 DACA 출신’ 첫 한인 로즈 장학생 “내가 속한 곳은 어디?”

글 이귀원 뉴욕 특파원



美 뉴욕주 의회, '3·1운동의 날' 결의

글 이준서 뉴욕 특파원

미국 뉴욕주 의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유관순(1902~1920)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 결의에 따라 올해 3월 1일은 뉴욕주 차원에서 '3·1운동의 날'로 지정되게 된다.

애초 '유관순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유관순 열사의 저항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부각하는 쪽으로 조율됐다.

뉴욕주 상·하원은 1월 15일 주도(州都) 올버니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 의원 63명, 하원

의원 15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측 일각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대립보다는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뉴욕주 의회는 결의안 선언문(Proclamation)에서 "한국은 일본 지배하에서 억압과 차별, 폭력을 받았고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에서도 위협을 받았다"면서 "1919년 3월 1일 식민지배에 반대한 한국인들의 운동은 올해 3월 1일로 100주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계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에서 수업받은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을 주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면서 "그의 부모가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고문 하에서도 동포들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1920년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와 3·1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의 배경에는 뉴욕한인회를 비롯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더불어 미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주 상원에서는 토비 앤 스타비스카-존 리우 의원, 주 하원에서는 론 감-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한인 1.5세인 론 김 의원이 주도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미국 시장을 빠르게 개척해가고 있는 한국식 치킨 전문 체인 '본촌'(Bon Chon)을 주목했다.

포브스는 1월 8일 외식 전문 기자 게리 스텐의 기사를 통해 한국식 프라이드치킨 체인 본촌이 급성장을 거듭하며 미국 최대 치킨 체인 'KFC'의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텐은 시카고에 기반을 둔 컨설팅업체 테크노믹(Techonomic)의 '미국 500대 레스토랑 체인' 보고서를 인용, 본촌의 매출 규모가 2017년 한 해 35% 급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본촌은 전 세계적으로 3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작년 한 해 36개 매장이 새로 문을 열면서 총 87개로 늘었고, 올해 중 25개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스텐은 "본촌은 2002년 한국 부산에 처음 문을 연 직후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에서는 2006년 뉴저지주 포트리에 첫 매장을 열었고 곧이어 맨해튼으로 세를 넓혔다고 소개했다. 이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으로 퍼져나갔다.

스텐은 본촌이 한국 외에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면서 창업자인 서진덕 대표의 두 번 튀기는 방법을 이용, 고유의 특징 있는 프라이드치킨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촌 프랜차이즈를 열기 위해서는 뉴욕에서 4주 코스 훈련을 받아야 하며, 매장 오픈에 드는 비용은 51만~93만5천달러(5억7천만~10억5천만원)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미국 사업부 경영진과의 인터뷰에서 마케팅 담당 빅터 쉐는 "본촌만의 특징 있는 소스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오고, 치킨에 소스를 입히는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쉐 씨는 향후 5년 안에 미국 내 매장 300~400개, 전 세계적으로 700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본촌이 KFC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질문에 "본촌과 KFC는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사무실 밀집 지역, 번화가, 푸드코트 등에 더 적극적으로 입점할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면에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 포브스 제공

포브스 “한국식 치킨 전문 체인 본촌, 미국서 급성장”

글 김현 시카고 통신원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임기 3년 반 남기고 돌연 사임

글 임주영 워싱턴 특파원

임기를 3년 반가량 남겨둔 김용(59·미국명 Jim Yong Kim) 세계은행 총재가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김 총재는 1월 7일 성명을 내고 "극심한 빈곤을 종식한다는 사명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기관의 총재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2월 1일 세계은행 총재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위대한 기관의 헌신적인 직원들을 이끌고 빈곤 없는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던"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민간 기업에 합류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 참여하는 기회는 예상 못 했던 것이지만, 이것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중요 이슈와 신흥시장의 인프라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 김용 총재가 2월 1일부터



AP=연합뉴스

미국의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의 파트너이자 부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GIP는 개발도상국에 전력, 수도,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총재는 2012년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를 맡아 2016년 9월 연임에 성공해, 2017년 7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두 번째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1945년 세계은행 설립 이후 김 총재 이전까지 총재는 모두 미국인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총재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 아이오와주로 이민했으며 브라운대학 졸업 후 하버드대에서 의학박사와 인류학박사 학위를 받고 이 대학 의대 교수로 재직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 국장을 지낸 보건 전문가로, 2009년 한국계 최초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인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에 오르기도 했다.

영국 BBC는 "김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 충돌은 피했지만, 그의 정책 접근은 기후 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때때로 불화했다"며 세계은행은 미국 석탄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2월 개봉하는 영화 '알리타:배틀 엔젤'(이하 알리타)은 올해 최대 화제작 중 하나다. 26세기 고철 도시를 배경으로 인간의 두뇌와 기계의 몸을 가진 사이borg 소녀 알리타가 최강의 전사로 거듭나는 여정을 그린다.

2009년 선보인 '아바타'가 3D 영화의 새장을 열었다면, 사이borg 액션 블록버스터 '알리타'는 최신 시각효과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킹콩', '아바타' 등의 특수효과 작업을 맡은 뉴질랜드 회사 '웨타 디지털'이 시각효과를 담당했다.

이 회사 소속으로 '알리타'의 컴퓨터 그래픽(CG)을 담당한 슈퍼바이저 김기범 감독이 지난 달 서울 한 극장에서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한국 취재진과 만났다.

김 감독은 "하나의 CG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드물다"면서 "혁신적인 퍼포먼스 캡처 기술 등을 사용해 배우의 모든 근육 움직임과 수백개의 표정, 치아와 잇몸까지 스캔해 분석한 뒤 생생하게 CG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공개된 30분 분량 푸티지 영상을 보면 알리타는 실제 배우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표정과 몸짓 하나, 피부 모공과 숨털, 머리카락 한올까지 생생했다.

'메이즈 러너:데스 큐어', 넷플릭스 영화 '버드박스'에 출연한 배우 로사 살라자르의 뛰어난 퍼포먼스 캡처 연기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그가 얼굴에 여러 점을 찍고, 수트를 입고 연기하면 주위의 적외선 카메라가 몸의 움직임, 표정을 캡처했다.

김 감독은 "로사는 매우 강력한 여배우로, 그런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 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극 중 알리타의 큰 눈을 구현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김 감독은 "눈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다. 눈의 홍채, 모양체, 돌기 등 해부학적 구조를 분석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벽하게 재연하려고 했다"면서 "'반지의 제왕' 속 골룸의 눈보다 훨씬 진보했다"고 소개했다.

이 영화는 1990년 처음 출판된 일본의 대표적인 SF 만화 '총몽'이 원작이다. '타이타닉',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런 감독이 원작의 세계관과 캐릭터에 매료돼 실사화를 결정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해 미뤄왔던 '인생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김 감독은 한국 영구아트무비에서 '디 워' 작업에 참여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VFX 스튜디오 ILM에 약 10년간 몸담으며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트랜스포머 3', '아이언맨 2', '어벤저스' 등에 참여했다. 2016년부터 웨타 디지털에 합류해 '혹성탈출: 종의 전쟁'과 '알리타' 작업을 담당했다.



사진 / 20세기 폭스 코리아 제공

영화 '알리타' CG 만든 김기범 감독

글 조재영 기자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인형이 제작된다. 제작사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마텔이 K-팝 밴드 방탄소년단의 공식 인형 컬렉션을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텔은 이를 위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올여름 출시될 인형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7명을 이들의 뮤직비디오 '아이돌'에 나온 모습 그대로 재현한 형태가 될 예정이다. 마텔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은 나이와 문화, 언어를 초월한 팝 문화의 음악 현상"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마텔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이 그룹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글로벌한 매력을 지닌 저명한 프랜차이즈와 협업하는 것은 우리 전략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창의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방탄소년단 기념품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최적"이라고 덧붙였다. 마텔의 주가는 방탄소년단 인형 출시 소식 발표 다음 날 9% 가까이 뛰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미국 빌보드 톱 200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한 첫 한국 밴드로 기록됐다.

방탄소년단 인형 나온다 '바비 인형' 만든 마텔과 계약

글 정성호 기자

美 사립 명문 조지워싱턴대에 한국어 문학 전공 개설

글 강성철 기자

미국 사립 명문인 조지워싱턴대학이 오는 9월 학기부터 한국어문학 전공을 개설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이시형)은 조지워싱턴대학 측에 한국어학 기금교수직 설치를 지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워싱턴DC 소재 대학 중 처음으로 한국어학 관련 전공이 개설되는 의미가 있다.

대학 측은 고급한국어를 비롯해 한국 문학, 한국사, 한국문화 등을 전공과목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어문학 전공이 포함된 동아시아어문학과와 쇼코 하마노 학과장은 "수강생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여름학기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지워싱턴대는 한국어 강좌(1993년) 및 한국 문학 강좌(1999년)를 개설했고 2000년부터 한국어문학 부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F

는 1999년부터 역사학에 이어 정치학, 한국 문학·문화학 등 3개 분야에 한국어학 기금교수직 설치를 지원했다.

KF 관계자는 "대학 내 중국학과 일본학이 전공 및 부전공 과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열세였던 한국어학이 2017년 한국어연구소 개소에 이어 이번에 전공 과정도 생겨 미국 정치외교 중심부에서 청년 지한파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K팝에 환호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학문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F는 공공외교 측면에서 워싱턴DC 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지워싱턴대의 한국 관련 연구·교육 지원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①

